

# 남자 청소년의 우울과 섭식문제의 관계에서 지각된 부모 공감의 조절효과

최민정\*, 강상현\*\*, 손정락\*\*\*

밝은마음정신건강의학과\*, 마더심리학습센터\*\*,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 Moderating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empath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eating problems in male adolescents

Min-Jeong Choi\*, Sang-Hyun Kang\*\*, ChongNak Son\*\*\*

Bright Mind Psychiatry Clinic\*

Ma-Deo Psychological Learning Center\*\*

Dept. of Psych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남자 청소년의 섭식문제와 우울, 부모 공감의 관계를 알아보고 청소년의 섭식문제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모 공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K지역 소재 중, 고등학교 남학생 246명에 대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섭식문제와 우울간의 관계는 부모 공감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공감의 하위요인들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경우 정서 지각, 냉담정서반응, 과민정서반응이 조절효과를 보였고, 어머니의 경우 정서지각, 관점수용, 냉담정서반응, 과민정서반응이 섭식문제와 우울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공감이 우울과 섭식문제의 관계에서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절변인임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섭식문제, 우울, 부모 공감, 냉담정서반응, 과민정서반응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parental empath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depression and eat problem.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for 246 middle and high school boys in the K region. As a result, the relationship between eating problem and depression was controlled by parental sympath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sub- factors of parental sympathy, in the case of the father, awareness of emotion, cold emotional reaction, and excessive emotional reaction showed moderating effects. And in mothers, awareness of emotion, perspective taking, cold emotional reaction, and excessive emotional reaction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ating problem and depression. It is significant that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empathy of parents perceived by adolescents is a control variable to mitigate the adverse effects of depression on eating problems.

**Key Words** : Eating problem, Depression, Parental Empathy, Cold emotion reaction, Excessive emotion reaction.

Received 18 October 2017, Revised 27 November 2017  
Accepted 20 December 2017, Published 28 December 2017  
Corresponding Author: ChongNak S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Email: jrson@jbn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섭식태도는 섭식장애와 연속성을 가지는 개념으로 정상적인 섭식태도를 갖는 것에서부터 섭식 절제 태도, 폭식을 거쳐 신경성 식욕부진증이나 신경성 폭식증이라는 임상적 증후군에까지 이르는 연속선상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1]. 여기에서 역기능적인 이상 섭식태도는 주로 청소년기 혹은 성인 초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청소년의 이상 섭식태도는 영양실조, 빈혈 등의 심각한 신체적 기능 저하를 야기하며, 발달적 취약성과 맞물려 우울, 불안, 자살생각 혹은 자살시도 등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할 위험이 높으므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2]. 또한 이상섭식행동의 경우 주로 여성들에게 발생되어 왔다고 여겨져 왔으나 196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남성의 이상섭식행동 비율 또한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고 최근 외모 및 신체상과 관련된 부정적 섭식행동이나 근육강화제 복용 등의 문제를 호소하는 남자청소년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3] 섭식문제의 성별 간 경계가 무너지고 있어서 섭식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남성에 대한 관심과 접근이 필요하다.

섭식태도 관련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우울, 불안, 인지-성격양식, 완벽주의 성향, 자아존중감 등의 개인심리적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섭식태도를 설명하는 개인심리적 요인들 중 우울과 같은 특정 정서는 섭식문제를 유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수의 연구에서 우울이 심할수록 자신의 체형에 대한 불만족감이 높고 폭식 행동과 상관성이 높았으며 폭식을 유지하는 요인이 밝혀졌다. 또한 임상적으로 신경성 식욕부진증 환자 중에서 우울을 동반하는 비율이 35~85%, 폭식증 환자는 우울과 불안 측정 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

청소년기 경험하는 우울이 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가 있었지만 최근 연구된 많은 연구들에서는 섭식장애의 원인을 특정한 것으로 보기보다 생물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이 다차원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섭식장애의 발병 및 경과에 부적절한 가족 간의 상호작용 방식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많은 연구들에서 언급되어 왔다. 즉 섭식장애 발병의 여러 원인 중 가족 환경은 결정적인 심리사회적 요소이며, 실제로 부모의 지지 수준

이 낮을수록 이상 섭식행동 수준이 더 높았고[5], 정상 가족과 비교했을 때 섭식장애 환자에서 전반적인 가족의 역기능이 발견되었으며[6], 이상 섭식 태도를 보이는 집단이 정상 섭식 태도를 보이는 집단보다 가족 기능, 가족원 사이의 생활 시간 공유, 가족원 간의 친밀감,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 등을 더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였다[7]. 또한 신경성 식욕부진증은 과보호적인 가족 환경에서 발생하고, 신경성 폭식증은 비체계적인 가족 환경에서 나타나며 부모의 무관심, 불화, 돌봄의 부족이 섭식장애 군에서 많이 나타났다고 보고되었다[8]. 이와 같이 섭식장애는 가족이라는 범위 안에서 발생하고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섭식장애와 가족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이는데 국내에서는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섭식행동 간의 연관성이 연구되어 왔으며 그 이외에 가족의 영향요인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사소통기술, 체중과 외모에 대한 가족의 메시지, 가족관계, 부모애착 등이 연구되었다.

섭식장애와 부모자녀관계를 살펴 본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공성숙 등은 어머니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복종을 요구하는 양육행동을 할 경우 나이에 적절한 역할과 행동을 배우지 못한 채 독립이라는 발달과제에 직면하여 혼돈과 우울을 경험하며 이 과정에서 섭식 장애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고[9], 황미진 등은 부모와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을수록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공허감이 우울감으로 연결되고 결국 왜곡된 섭식태도를 야기한다고 하였다[10]. 또한 박미란 등은 지각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역기능적인 섭식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녀의 부정적 정서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부정적 정서 조절 기대를 통해 역기능적인 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1]. 이정은 등은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조기 발병 집단에서 아버지의 애정, 어머니의 과잉간섭이 낮게 보고되고 아버지의 합리적 설명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12]. 김영미는 부모의 정서적 친밀감이 낮거나 공감이 부족하고 간섭과 통제, 과잉보호 수준이 높으면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결핍된 자기대상을 회복하려는 시도로써 자기대상욕구를 갈망하거나 회피하는 심리적 기제가 활성화되어 외부대상인 음식으로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매달림에 따라 부적응적인 섭식태도를 야기하거나 심화시킨다고 하였다[13]. 이들의 연구들을 통해 살펴본 결과 청소년기에 시작되는 섭식문제는 개인적 부적응의 성격이 강해보

이지만 실제로는 청소년이 접하는 일차적인 환경인 가족의 기능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특히 부모와의 관계는 섭식장애의 발생과 치료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태도 중 부모의 공감에 청소년의 섭식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것은 부족한 실정이다.

청소년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요소들 중 부모의 공감은 많은 이론들에서 자녀의 정서, 인지, 대인관계, 이타행동의 발달 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어 왔다[14]. 부모가 자녀를 공감해준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의 정서를 지각하고 자녀의 관점을 수용하며, 자녀의 정서와 함께하고 이를 언어적, 행동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1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공감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 수용과 행복 수준이 높다[16]. 이와 관련하여 공감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공감적인 부모는 부모-자녀 관계를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어머니가 공감적일수록 자녀들은 높은 성취력과 행복감, 낮은 공격성을 보이며[17], 공감적인 양육은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8]. 또한 지각된 부모 공감이 높을수록 학교스트레스와 우울은 낮고[19] 학교 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학교에서의 공부, 친구관계, 교사와의 관계, 생활 등을 더 잘하게 한다[20]. 이들 연구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녀의 심리사회적 발달 및 심리적 건강, 문제 행동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모공감은 청소년의 우울과 섭식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완충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공감이 청소년의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섭식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부모공감, 청소년의 우울, 섭식문제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우울이 섭식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 공감이 섭식문제를 줄여주는 중재 변인으로서 조절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또한 우울이 섭식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감의 하위 요인들이 가지는 조절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부모 공감의 영향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우울 및 섭식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부모의 공감적 태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문항의 4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적인 문항은 역점으로 계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K지역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회수된 300부의 설문지 중에서 연구에 동의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응답, 부와 모의 공감 정도를 모두 응답하지 않은 54부를 제외하고 총 246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 2.2 측정도구

#### 2.2.1 섭식태도

섭식태도는 Choi 등[21]이 번안한 한국판 청소년용 식이태도검사(EAT-26KA)를 사용하였다. 자기보고식 형태의 Eating Attitudes Testsm 개발 당시 4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후 Garner 등[22]에 의해 26문항의 단축형 Eating Attitudes Test(EAT-26)가 소개되었다. EAT-26KA는 총 26문항, 6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총점의 범위는 0~7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섭식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ach's  $\alpha = .90$ 이었다.

#### 2.2.2 부모 공감

부모의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조용주[23]가 개발한 부모 공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개의 하위 요인(정서지각, 관점수용, 공감적 정서반응, 냉담한 정서반응, 과민한 정서반응)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에 대한 반응은 아버지의 공감과 어머니의 공감을 나누어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4점 Likert식 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관점수용을 측정하는 2개의 문항은 역채점하여 각 하위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공감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공감을 청소년의 섭식문제를 줄이는 보호요인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비공감적 요인 냉담한 정서반응과 과민한 정서반응을 역채점 처리하여 부모공감 변인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 하위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60~.85, 어머니의 하위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62~.83으로 나타났다.

2.2.3 우울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Radloff[24]의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를 전경구 등[25]이 통합적 한국판 CES-D로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0문항의 4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적인 문항은 역점으로 계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Statistics, version 19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평균, 표준편차, 빈도분석, Pearson의 단순상관관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각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분산팽창인자(VIF, Variance Inflation Factor)계수를 확인한 결과, 모든 모형의 변수에서 VIF가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3. 결과

3.1 연구 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

청소년의 섭식문제와 우울, 부모 공감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술통계 값으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표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eating problem and adolescent depression, parental empathy

		total (N=246)
		M(SD)
eating problem		45.3(15.17)
Depression		13.72(10.56)
father' empathy	awareness of emotion	13.92(2.8)
	perspective taking	15.82(2.44)
	empathic emotional reaction	15.59(2.59)
	cold emotional reaction	14.46(2.72)
	excessive emotional reaction	13.31(2.47)
	Total	70.25(8.16)
mother' empathy	awareness of emotion	14.93(2.46)
	perspective taking	15.55(2.38)
	empathic emotional reaction	16.18(2.21)
	cold emotional reaction	14.98(2.55)
	excessive emotional reaction	12.72(2.5)
	Total	72.02(7.22)

3.2 섭식문제와 우울, 부모 공감의 상관관계

청소년의 섭식문제와 우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공감과 각 하위 요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섭식문제와 우울, 부모 공감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 부모 공감을 부와 모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섭식문제는 우울( $r=.24, p<.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부의 공감( $r=-.16, p<.01$ )과 모의 공감( $r=-.14, p<.01$ )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섭식문제가 높고 청소년이 부모가 많이 공감해준다고 느낄수록 우울과 섭식문제의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섭식문제와 우울, 부의 공감과 모의 공감의 각각 5개의 하위 요인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우울은 부모 공감의 모든 하위 요인들과 .01의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r=-.19\sim-.34, p<.01$ ). 섭식문제는 부의 공감 하위 요인 중 정서지각( $r=-.15, p<.05$ ), 관점수용( $r=-.15, p<.05$ ), 냉담한 정서반응( $r=-.25, p<.01$ ), 과민 정서반응( $r=-.33, p<.01$ )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고, 모의 정서지각( $r=-.13, p<.05$ ), 관점수용( $r=-.11, p<.01$ ), 냉담한 정서반응( $r=-.28, p<.01$ ), 과민 정서반응( $r=-.29, p<.01$ )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3.3 섭식문제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모 공감 하위 요인의 조절효과

우울이 섭식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 공감 하위 요인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는데 결과는 <Table 2>부터 <Table 11>까지 제시하였다.

<Table 2> Moderation effect of father's awareness of emo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ating problem and adolescent depression

step	IV	eating problem				
		$\beta$	t	$R^2$	$\Delta R^2$	F
1	A	.24	3.93***	.06	.06	15.46***
	B	-.11	-1.7	.07	.01	9.2
3	A	.33	1.3*			
	B	-.07	-.69	.09	.02	8.26*
	A*B	-.60	-2.43*			

IV: independent variable

A: depression, B: awareness of emotion

A\*B: interaction

\* $p<.05$ , \*\* $p<.01$ , \*\*\* $p<.001$

부 공감의 하위 요인 중에서 정서지각의 조절 효과 분석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었다. 부의 정서지각을 조절변인으로 투입했을 때 우울과 섭식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단계에서 우울과 모의 정서지각 요인을 투입했을 때 우울의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며( $\beta=.26, p<.001$ ), 부의 정서지각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beta=-.11, p>.01$ ). 그러나 3단계에서 우울과 부의 정서지각의 상호작용을 검증한 결과, 우울과 부의 정서지각 상호작용항이 유의하였고( $\beta=-.60, p<.05$ ), 섭식문제에 대해 2%의 설명력을 추가하였다( $F=8.26, p<.05$ ).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모형 3단계의  $R^2$ 의 변화량이 유의한 것은 부의 정서지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을 뜻하며 청소년이 우울할 때 아버지가 자녀의 기분을 알아줄수록 섭식문제가 줄어드는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Table 3> Moderation effect of father's perspective tak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ating problem and adolescent depression

step	IV	eating problem				
		$\beta$	<i>t</i>	$R^2$	$\Delta R^2$	<i>F</i>
1	A	.24	3.93***	.06	.06	15.46***
	B	.22	3.44***	.07	.01	8.75
2	A	.54	1.54			
	B	-.09	-1.41			
3	A	.54	1.54			
	B	-.01	-.13	.07	.00	6.11
	A * B	-.32	-.93			

IV: independent variable  
 A: depression, B: perspective taking  
 A \* B: interaction  
 \*  $p<.05$ , \*\*  $p<.01$ , \*\*\*  $p<.001$

부 공감의 하위 요인 중에서 관점수용의 조절 효과 분석결과는 <Table 3>에 제시되었다. 부의 관점수용을 조절변인으로 투입했을 때 우울과 섭식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 공감의 하위 요인 중에서 공감적 정서반응의 조절 효과 분석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었다. 부의 공감적 정서반응을 조절변인으로 투입했을 때 우울과 섭식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Moderation effect of father's empathic emotional re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ating problem and adolescent depression

step	IV	eating problem				
		$\beta$	<i>t</i>	$R^2$	$\Delta R^2$	<i>F</i>
1	A	.24	3.93***	.06	.06	15.46***
	B	.25	3.92***	.09	.03	7.85
2	A	.03	.53			
	B	-.13	-.42			
3	A	-.07	-.64	.11	.02	5.76
	A * B	.38	1.24			

IV: independent variable  
 A: depression, B: empathic emotional reaction  
 A \* B: interaction  
 \*  $p<.05$ , \*\*  $p<.01$ , \*\*\*  $p<.001$

<Table 5> Moderation effect of father's cold emotional re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ating problem and adolescent depression

step	IV	eating problem				
		$\beta$	<i>t</i>	$R^2$	$\Delta R^2$	<i>F</i>
1	A	.35	3.93***	.06	.06	15.46***
	B	.26	2.74***	.09	.03	12.38**
2	A	-1.07	-2.97**			
	B	1.06	2.83**			
3	A	1.06	2.83**	.11	.02	10.02*
	A * B	-.06	-2.21*			

IV: independent variable  
 A: depression, B: cold emotional reaction  
 A \* B: interaction  
 \*  $p<.05$ , \*\*  $p<.01$ , \*\*\*  $p<.001$

부 공감의 하위 요인 중에서 냉담한 정서반응의 조절 효과 분석결과는 <Table 5>에 제시되었다. 부의 냉담한 정서반응을 조절변인으로 투입했을 때 우울과 섭식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단계에서 우울과 부의 냉담한 정서반응 요인을 투입했을 때 우울의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며( $\beta=.26, p<.01$ ), 부 냉담한 정서반응 주효과도 유의하였다( $\beta=-1.07, p<.01$ ). 우울과 부의 냉담한 정서반응은 섭식문제에 대한 전체변량의 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2.38, p<.01$ ). 3단계에서 우울과 부의 냉담한 정서반응의 상호작용을 검증한 결과, 우울과 부의 냉담한 정서반응 상호작용항이 유의하였고( $\beta=-.06, p<.05$ ), 섭식문제에 대해 2%의 설명력을 추가하였다( $F=10.02, p<.05$ ).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모형

3단계의 R<sup>2</sup>의 변화량이 유의한 것은 부의 냉담한 정서반응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을 뜻하며 청소년이 우울할 때 아버지가 자녀의 기분을 무시할수록 섭식문제가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우울이 섭식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의 냉담한 정서 반응이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Table 6> Moderation effect of father's excessive emotional re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ating problem and adolescent depression

step	IV	eating problem				
		$\beta$	<i>t</i>	<i>R</i> <sup>2</sup>	$\Delta R^2$	<i>F</i>
1	A	.35	3.93***	.06	.06	15.46***
	B	-1.74	-4.62***	.14	.08	19.06***
2	A	.25	2.89***	.14	.08	19.06***
	B	-1.74	-4.62***	.14	.08	19.06***
3	A	1.98	4.93***	.20	.06	20.12***
	B	-.11	-.20*	.20	.06	20.12***
	A * B	-.13	-4.40***			

IV: independent variable

A: depression, B: excessive emotional reaction

A \* B: interaction

\**p*<.05, \*\**p*<.01, \*\*\**p*<.001

부 공감의 하위 요인 중에서 과민 정서반응의 조절 효과 분석결과는 <Table 6>에 제시되었다. 부의 과민 정서 반응을 조절변인으로 투입했을 때 우울과 섭식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단계에서 우울과 부의 과민 정서반응 요인을 투입했을 때 우울의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며( $\beta=.25, p<.001$ ), 부 과민 정서반응 주효과도 유의하였다( $\beta=-1.74, p<.001$ ). 우울과 부의 과민 정서반응은 섭식문제에 대한 전체변량의 1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9.06, p<.01$ ). 3단계에서 우울과 부의 과민 정서반응 상호작용을 검증한 결과, 우울과 부의 과민 정서반응 상호작용이 유의하였고( $\beta=-.13, p<.001$ ), 섭식문제에 대해 6%의 설명력을 추가하였다( $F=20.12, p<.001$ ). 따라서 청소년이 우울할 때 아버지가 자녀의 정서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불편함을 나타내면 섭식문제가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우울과 섭식문제에서 부의 과민정서반응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Table 7> Moderation effect of mother's awareness of emo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ating problem and adolescent depression

step	IV	eating problem				
		$\beta$	<i>t</i>	<i>R</i> <sup>2</sup>	$\Delta R^2$	<i>F</i>
1	A	.24	3.93***	.06	.06	15.46***
	B	.28	4.51***	.09	.03	12.5*
2	A	.28	4.51***	.09	.03	12.5*
	B	-.19	-3.00*	.12	.02	10.6*
3	A	.54	1.63	.12	.02	10.6*
	B	-.01	-.06	.12	.02	10.6*
	A * B	-.82	-2.51*			

IV: independent variable

A: depression, B: awareness of emotion

A \* B: interaction

\**p*<.05, \*\**p*<.01, \*\*\**p*<.001

모 공감의 하위 요인 중에서 정서지각의 조절 효과 분석결과는 <Table 7>에 제시되었다. 모의 정서지각을 조절변인으로 투입했을 때 우울과 섭식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단계에서 우울과 모의 정서지각 요인을 투입했을 때 우울의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며( $\beta=.28, p<.001$ ), 모의 정서지각 주효과도 유의하였다( $\beta=.19, p<.01$ ). 우울과 모의 정서지각은 섭식문제에 대한 전체변량의 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2.5, p<.01$ ). 3단계에서 우울과 모의 정서지각의 상호작용을 검증한 결과, 우울과 모의 정서지각 상호작용항이 유의하였고( $\beta=.82, p<.05$ ), 섭식문제에 대해 2%의 설명력을 추가하였다( $F=10.6, p<.05$ ).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모형 3단계의 R<sup>2</sup>의 변화량이 유의한 것은 모의 정서지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을 뜻하며 청소년이 우울할 때 어머니가 자녀의 기분을 알아줄수록 섭식문제가 줄어드는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Table 8> Moderation effect of mother's perspective tak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ating problem and adolescent depression

step	IV	eating problem				
		$\beta$	<i>t</i>	<i>R</i> <sup>2</sup>	$\Delta R^2$	<i>F</i>
1	A	.24	3.93***	.06	.06	15.46***
	B	.22	3.45***	.07	.01	8.59
2	A	.22	3.45***	.07	.01	8.59
	B	-.08	-1.3	.09	.02	7.57*
3	A	1.1	2.82**	.09	.02	7.57*
	B	.10	1.0	.09	.02	7.57*
	A * B	-.86	-2.28*			

IV: independent variable

A: depression, B: perspective taking

A \* B: interaction

\**p*<.05, \*\**p*<.01, \*\*\**p*<.001

모 공감의 하위 요인 중에서 관점수용의 조절 효과 분석결과는 <Table 8>에 제시되었다. 모의 관점수용을 조절변인으로 투입했을 때 우울과 섭식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단계에서 우울과 모의 관점수용 요인을 투입했을 때 우울의 주효과는 유의하였으나( $\beta=.22, p<.001$ ), 모 관점수용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beta=.08, p>.001$ ). 그러나 3단계에서 우울과 모의 관점수용의 상호작용을 검증한 결과, 우울과 모의 관점수용 상호작용항이 유의하였고( $\beta=-.86, p>.001$ ) 섭식문제에 대해 2%의 설명력을 추가하였다( $F=7.57, p<.05$ ).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모형 3단계의  $R^2$ 의 변화량이 유의한 것은 모의 관점수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을 뜻하며 청소년이 우울할 때 어머니가 관점을 수용해줄수록 섭식문제가 줄어드는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Table 9> Moderation effect of mother's empathic emotional re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ating problem and adolescent depression

step	IV	eating problem				
		$\beta$	$t$	$R^2$	$\Delta R^2$	$F$
1	A	.24	3.93***	.06	.06	15.46***
	B	.01	.08	.06	.00	7.7
3	A	.43	.95	.06	.00	5.17
	B	.04	.38	.06	.00	5.17
	A*B	-.18	-.41			

IV: independent variable  
 A: depression, B: empathic emotional reaction  
 A \* B: interaction  
 $p<.05$ , \*\* $p<.01$ , \*\*\* $p<.001$

모 공감의 하위 요인 중에서 공감적 정서반응의 조절 효과 분석결과는 <Table 9>에 제시되었다. 모의 공감적 정서반응을 조절변인으로 투입했을 때 우울과 섭식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공감의 하위 요인 중에서 냉담한 정서반응의 조절 효과 분석결과는 <Table 10>에 제시되었다. 모의 냉담한 정서반응을 조절변인으로 투입했을 때 우울과 섭식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단계에서 우울과 모의 냉담한 정서반응 요인을 투입했을 때 우울의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며( $\beta=.18, p<.001$ ), 모 냉담한 정서반응 주효과도 유의하였다( $\beta$

$=-.21, p<.01$ ). 우울과 모의 냉담한 정서반응은 섭식문제에 대한 전체변량의 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3.29, p<.001$ ). 3단계에서 우울과 모의 냉담한 정서반응의 상호작용을 검증한 결과, 우울과 모의 냉담한 정서반응 상호작용항이 유의하였고( $\beta=-1.36, p<.001$ ), 섭식문제에 대해 9%의 설명력을 추가하였다( $F=18.5, p<.001$ ). 즉 청소년이 우울하고 어머니가 자녀의 기분을 무시할수록 섭식문제가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우울이 섭식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모의 냉담한 정서 반응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Table 10> Moderation effect of mother's cold emotional re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ating problem and adolescent depression

step	IV	eating problem				
		$\beta$	$t$	$R^2$	$\Delta R^2$	$F$
1	A	.24	3.93***	.06	.06	15.46***
	B	.18	2.81**	.10	.04	13.29***
3	A	1.57	5.64***	.19	.09	18.50***
	B	.14	1.56	.19	.09	18.50***
	A*B	-1.36	-5.12***			

IV: independent variable  
 A: depression, B: cold emotional reaction  
 A \* B: interaction  
 $*p<.05$ , \*\* $p<.01$ , \*\*\* $p<.001$

<Table 11> Moderation effect of mother's excessive emotional re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ating problem and adolescent depression

step	IV	eating prblem				
		$\beta$	$t$	$R^2$	$\Delta R^2$	$F$
1	A	.24	3.93***	.06	.06	15.46***
	B	.16	2.57*	.12	.06	16.67***
3	A	1.37	4.5***	.18	.06	17.27***
	B	.03	.29	.18	.06	17.27***
	A*B	-1.18	-4.05***			

IV: independent variable  
 A: depression, B: excessive emotional reaction  
 A \* B: interaction  
 $*p<.05$ , \*\* $p<.01$ , \*\*\* $p<.001$

모 공감의 하위 요인 중에서 과민 정서반응의 조절 효과 분석결과는 <Table 11>에 제시되었다. 모의 과민 정

서반응을 조절변인으로 투입했을 때 우울과 섭식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단계에서 우울과 모의 과민 정서반응 요인을 투입했을 때 우울의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며( $\beta=.16, p<.001$ ), 모 과민 정서반응 주효과도 유의하였다( $\beta=-.26, p<.001$ ). 우울과 모의 냉담한 정서반응은 섭식문제에 대한 전체변량의 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6.67, p<.01$ ). 3단계에서 우울과 모의 과민 정서반응의 상호작용을 검증한 결과, 우울과 모의 과민 정서반응 상호작용이 유의하였고( $\beta=-1.18, p<.001$ ), 섭식문제에 대해 설명력을 6%를 추가하였다( $F=17.27, p<.001$ ). 즉 청소년이 우울할 때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불편함을 나타내면 섭식문제가 증가하며 청소년의 우울과 섭식문제에서 모의 과민 정서반응이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 4. 논의

본 연구는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의 우울이 섭식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 공감의 조절효과를 밝히고 그로 인해 부모 공감의 요인 중 청소년의 섭식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우울, 섭식문제, 부모 공감 하위 요인들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고 청소년의 우울과 섭식문제의 관계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공감의 하위 요인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공감과 청소년의 우울, 섭식문제의 관계를 살펴보면 결과 부모 공감은 우울 및 섭식문제와 부적상관이 있었다. 청소년이 경험하는 우울은 부모 공감의 하위 요인 중 정서지각, 관점수용, 공감적 정서반응, 냉담한 정서반응, 과민한 정서반응과 모두 부적 상관이 있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공감 수준이 낮을수록 자녀는 우울감을 더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자녀의 기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녀와 같은 기분을 느끼면서 애정을 표현하지 못하며 자녀의 기분을 무시하거나 자녀가 경험하는 우울감을 불편해한다면 자녀의 우울감은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섭식문제는 부모 공감 하위 요인 중 부의 관점수용, 냉담한 정서반응, 과민한 정서반응, 모의 정서지각, 관점수용, 냉담한 정서지각, 과민한

정서지각과 부적 상관이 있어서 부모의 공감이 적을수록 자녀의 섭식문제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공감을 보이는 어머니의 자녀는 공격성, 과다행동, 우울, 불안을 보이고[26] 가정환경이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며[27] 가족과 같은 주위 사람들의 정서적 지지가 정신건강 문제의 발생에 완충효과를 내내고[28]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가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을 감소시키며[29] 부모의 지지 수준이 낮을수록 이상 섭식행동 수준이 더 높았다는[5]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부모의 공감이 자녀의 우울 수준을 낮추고 행복감을 증가시킴으로써 섭식문제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청소년의 우울과 섭식문제의 관계에서 부모 공감의 조절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의 정서지각, 냉담한 정서반응, 과민한 정서반응, 모의 정서지각, 관점수용, 냉담한 정서반응, 과민한 정서반응이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이 우울하더라도 부모님이 자신을 충분히 공감해주고 있다고 지각하게 된다면 높은 우울감이 섭식문제까지 발전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특히 부모 모두에서 냉담한 정서반응과 과민한 정서반응이 다른 하위요인에 비해 섭식문제에 대한 설명력이 더 높았는데 이는 자녀의 우울한 감정을 부모가 무시하거나 불편해하면 섭식문제의 위험이 더욱 높아짐을 나타내며 아버지의 무신경하고 거부적인 태도가 섭식장애 증상의 발생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15].

부모 공감의 하위 요인 중 부의 정서지각, 관점수용, 모의 정서지각 요인들은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정서지각과 관점수용은 공감의 인지적 요인인 반면 공감적 정서반응과 냉담한 정서반응, 과민한 정서반응은 공감의 정서적 요인이다. 부모 공감의 인지적 요인보다 정서적 요인이 자녀의 우울과 섭식문제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정의 부정적인 정서적 분위기가 부모 자녀 관계의 안정성을 약화시켜서 이러한 가족적 요인이 우울을 매개로 하여 섭식문제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선행 연구와 유사한 것으로[30] 청소년 섭식문제의 예방과 증세에 있어서 부모가 자녀와 같은 기분을 느끼면서 애정과 염려를 나타내고 자녀의 기분을 무시하거나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 상태에 대해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불편해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청소년의 섭식문제를 다룬 연구들은 대부분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본 연구는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남자 청소년 역시 우울할수록 역기능적인 섭식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둘째, 우울과 섭식문제의 관계에서 부모의 공감 이 조절 변인으로 작용하므로 우울한 청소년이 섭식문제를 보일 때 가정 내 부모의 공감적 태도를 점검하고 변화 시킴으로써 청소년이 보이는 섭식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K 지역에 소재한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 2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제한된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적은 표집으로 여러 하위 변인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때문에 통계적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추후에는 보다 많은 대상자를 채집하여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부모 공감 척도가 5개의 하위 요인(정서지각, 관점수용, 공감적 정서반응, 냉담한 정서반응, 과민한 정서반응)으로 이루어졌고 이 하위척도가 개별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다르며 공감적 태도의 세부적인 부분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우울 및 섭식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태도를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부모 공감 척도의 총점을 활용한 분석을 제외하여 부모 공감의 양적 수준에 따른 조절효과를 알아볼 수 없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 공감 척도의 총점을 활용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우울과 섭식문제, 부모의 공감 간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정상섭식태도를 보인 집단과 이상섭식태도를 보인 집단 간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상섭식태도 군을 구별하여 살펴보기 않아서 본 연구 결과를 이상섭식태도를 보인 청소년에게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상섭식태도를 보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의 공감이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감소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더 살펴보기 위해 불안장애와 적응장애 등

과 같은 다양한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1] Mintz, L. B., & Betz, N. E.,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eating disordered behaviors among undergraduate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35, No. 3, pp. 463-471, 1988.
- [2] Tae, J., Nansel, T. R., Haynie, D. L., Mehta, S. N., & Laffel, L., "Disordered eating behaviors are associated with poorer diet quality in adolescents with type 1 diabetes", *Journal of The Academy of Nutrition and Dietetics*, Vol. 112, No. 11, pp. 1810-1814. 2012.
- [3] H. R. Kim, S. K. Park, H. S. Kim, "Correlates of disordered eating behaviors in school-based adolescents: an examination of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Vol. 25, pp. 71-95, 2008.
- [4] VanBoen, A. M., & Espelage, D. L., "Depressive symptoms, coping strategies, and disordered eating among college wome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 84, pp. 341-348, 2006.
- [5] Ata, R. N., Ludden, A. B., & Lally, M. M. "The effects of gender and family, friend, and media influences on eating behaviors and body image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36, No. 8, pp. 1024-1037, 2007.
- [6] Treasure, J., Sepulveda, A. R., MacDonald, P., Whitaker, W., Lopez, C., Zabala, M., Kyriacou, O., & Todd, G., "The assessment of the family of people with eating disorders", *Eur Eat Disord Rev*, Vol. 16, pp. 247-25, 2008.
- [7] S. Y. Baek, J. Y. Park, H. S. Kim, & T. H. Kim, "Eating attitudes, depression, parent-child interaction, and family function of adolescent girl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Vol. 32, No. 2, pp. 176-187, 2012.
- [8] Shoebridge, P. J., & Gowers, S. G., "Parental high

- concern and adolescent onset anorexia nervosa: A case-control study to investigate direction of causality",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Vol. 176, pp. 132-137, 2000.
- [9] S. S. Kong, M. S. Hyun, "experiences of mother-daughter relationship for eating disorders patient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Vol. 11, No. 2, pp. 249-259, 2002.
- [10] M. J. Hwang, H. J. Chung, & E. A. Lee, "Relationships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with eating attitude of female adolescents", *Journal of Korea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 26, No. 4, pp. 103-117, 2008.
- [11] M. R. Park, J. Y. Lee, & J. Y. Jang,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control and dysfunctional eating attitude on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the mediation effects of negative emotion and expectancies of negative emotion regulation",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 15, No. 4, pp. 143-165, 2014.
- [12] J. E. Lee, J. H. Lee, Y. C. Jung, J. Y. Park, K. Namkoong, D. W. Park, & K. R. Kim, "Parental behavior influence on the onset and severity of anorexia nervosa and bulimia nervosa", *Journal of Psychosomatic Medicine*, Vol. 23, No. 1, pp. 3-11, 2015.
- [13] Y. M. Kim,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object need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rearing style and eating attitude in adolescent", Master dissertation, Sogang University, 2016.
- [14] S. H. Park, "Empathy, Empathic understanding", Seoul, Wonmisa, 1996.
- [15] Y. J. Jo,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arental empathy inventory perceived by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7, No. 4, pp. 127-156, 2010.
- [16] B. I. Kim, I. S.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empathy and happiness perceived by adolescents: Mediating effects of self-accepta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0, No. 6, pp.195-218, 2013.
- [17] Y. J. Jo, "Trends in research on the impacts of parental empathy on childre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21, No. 4, pp. 915-941, 2009.
- [18] Y. I. Song, "The influence of mother's rearing attitude on children's happiness: children's self-esteem as a mediator", Master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2011.
- [19] J. M. Kim, "The moderating effect of optimism and perceived parental empathy in the relation between school-related stress and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1, No. 4, pp. 203-225, 2014.
- [20] J. Y. Lee, B. M. Kim, "Mediation effects of self-obj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 empathy perceived by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ir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female Psychology*, Vol. 17, No. 2, pp. 245-263, 2012.
- [21] J. H. Choi, D. H. Ahn, J. H. Nam, Y. G. Cho, B. Y. Choi, "reliability testing of eating attitude test for korean adolescents",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Vol. 9, No. 1, pp. 91-97, 1998.
- [22] Garner, D. M., Olm. P., Bohr, Y. & Garfinkel, P. E., "The eating attitudes test: psychometric features and clinical correlates", *Psychological Medicine*, Vol. 12, pp. 871-878, 1982.
- [23] Y. J. Jo.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arental empathy inventory perceived by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7, No. 4, pp. 127-156, 2010.
- [24] Radloff, L. S.,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Vol. 1, No. 3, pp. 385-401, 1977.
- [25] K. K. Chon, S. C. Choi, B. C. Yang, "Integrated Adaptation of CES-D in Korea",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6, No. 1, pp. 59-76, 2001.
- [26] Feshbach, N. D., "Parental empathy and child adjustment/maladjustment", In N. Eisenberg & J.

Stray(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 pp. 271-29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27] C. S. Lee, H. Y. Jang, "A study on variables influencing adolescents' depression: Based on Gender Comparis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9, pp. 47-54, 2017.
- [28] E. Jeng, M. R. Jung, "Convergence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social support in adolescents on depress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9, pp. 365-376, 2017.
- [29] S. N. Seo, S. G. Lee, S. H. Lim, "The effect of positive parenting style, self-efficacy, stress, and depression on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0, No. 8, pp. 327-333, 2012.
- [30] J. Y. Park, S. Y. Baek, H. S. Kim, J. H. Lim, T. H. Kim, "Testing the biobehavioral family model in understanding the eating problems of adolescent girls", Child Health Nurs Res, Vol. 19, No. 3, pp. 228-237, 2013.

손 정 락(Son, ChongNak)



- 1978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임상심리학 석사)
- 1989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임상심리학 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
- 관심분야 : 임상심리학, 건강심리학
- E-Mail : jrson@jbnu.ac.kr

최 민 정(Choi, Min Jeong)



- 2008년 8월 :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임상심리학 석사)
- 2011년 7월 ~ 현재 : 밝은마음정신건강의학과 임상심리사
- 관심분야 : 임상심리학, 청소년 우울, 섭식문제
- E-Mail : hanulo3@naver.com

강 상 현(Kang, Sang Hyun)



- 2004년 2월 :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임상심리학 석사)
- 2012년 2월 :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임상심리학 박사수료)
- 2012년 10월 ~ 현재 : 마더심리학습센터 센터장
- 관심분야 : 심리상담, 심리전기
- E-Mail : malgnaldo@naver.com